

민주 “신종 코로나 피해 방지가 선거보다 우선”

비공개 최고위 회의 열어
“입국 금지 대상 추가해야”
가짜 뉴스 차단·추경 등 거론
한국당에 초당 협력 요구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한대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시국을 맞은 총력 대응 태세를 분명히 했지만 정부의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 등에 대해 부족한 대응이란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4·15 총선 약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국 금지’에 나선 것이 다소 부족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중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서 밝혀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소속인 남민수의원도 BBS 라디오 ‘이상위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입국 금지는 최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후베이성이고, 향후 추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민주당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국민 불안감을 차단하는 것이 선거전에 우선한다는 판단 아래 정부 대응 지원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한대 대표는 회의

에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며 “조만간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방역망 강화, 서민경제 침체 최소화 및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2월 국회의 최우선 목표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사태 대응에 초당적 협력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국당의 입장이 건설적이고 적극적이다.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일심동체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코로나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수출·관광·숙박업 등 경제 피해 우려된다”며 “금주 이른 시일 내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5일째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 대책 마련을 협의할 방침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선거구 확정 논의의 가닥이 잡혀야 한다며 2월 중순을 넘어 국회를 열자는 입장인데,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허위정보·가짜뉴스 차단에도 주력했다.

박광운 최고위원은 “제주도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는데, 강력한 대처를 환영한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데, 관계 기업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 의원은 방역 총력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직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후에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월 국회서 검역법 개정·선거구 획정

여야 임시국회 개최 합의

여·야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에 따라 검역법 개정 등 민생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덕·자유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노태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원내수석부대표간 채널을 통해 임시국회 의사일정 후속 협의를 이어 나간 후 이를 토대로 원내대표단 회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덕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김의겸 불출마...정봉주 ‘부적격’

민주당 ‘논란 인사’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당했던 정봉주 전 의원 등 ‘논란 인사’의 4·15 총선 출마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모두 정리하고 가겠다는 기조를 확고히 밝힌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시작하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마지막 회의 1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폐의스북 글을 통해 자진 불출마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불출마 권고에도 ‘예비후보로만 뛰게 해달라’고 읍소했던 김 전 대변

인 이날 검증위 결론 이전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당의 강한 메시지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은 부동산, 미투 문제에 ‘불관용’ 입장으로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은 본인이 검증 없이 후보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법원이 1심에서 미투 폭로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심과 3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의 출마를 허용하는 것은 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장병완 “남구 문화·환경 대규모 국가 사업 완수”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대한신당 장병완 의원은 3일 4·15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동남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0년간 남구는 산업 불모지에서 산업, 문화, 환경의 중심지로 지도가 확 바뀌었다”며 “이러한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을 확실히 완성할 사람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 장병완뿐이

다”고 말했다. 또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은 지역과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숙한 정치 성향을 가진 광주 시로 지도가 확 바뀌었다”며 “이러한 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을 확실히 완성할 사람은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 장병완뿐이

주철현 “정치공작 이제 그만” 깨끗한 선거 선언

여수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일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이용한 음해성 정치공작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나쁜 정치 문화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수는 선거혼탁 지수가 전남 최고였다”며 “정치공작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명령인 ‘클린! 여수정치’를 만들겠다는 후보자들의 선언과 약속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참여 ‘정치공작 시민감시단’ 구성·운영 ▲각종 홍보물 ‘클린! 여수정치’ 캠페인 전개 ▲‘시민보좌관제’ 운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김창화 기자 chkim@

권세도 “전관예우·국회의원 겸직 금지 추진”

여수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권세도(61) 여수을 예비후보는 3일 “시민들과 함께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로 선출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당원 동지와 여수 시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그동안 뼈아픈 반성을 해왔고 다시 한 번 국가와 여수 발전을 위해 봉

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전관예우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개정 추진 ▲여수산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수사건특별법 발의 및 제정 추진 ▲석유화학산단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세 추가 확보 추진 등 공약을 공개했다. /김창화 기자 chkim@

한명진 “지역 균형발전 위해 일하는 국회 만들 것”

고흥·보성·장흥·강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한명진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예비후보는 3일 “30년 넘게 정부의 예산분야 한 길만 걸으며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밑거름 삼아 국회에서 고흥과 국가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지역과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변형한다는 생각으로 국회를 통

해 밝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못지않게 국회에서의 예산 능력이 중요하다. 민주당과 국회의 예산·경제 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기업과 산업을 키우는 예산, 안보와 국력을 튼튼히 하는 예산으로 일하는 국회를 앞장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자격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의시험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